



건설 지표 (2025.6)

▶ Analyst 송유림
3772-7152
yurim.song@hanwha.com

▶ RA 김예인
3772-8420
yein.kim@hanwha.com

목 차

0. 도시정비 시장, 본격 개화.....	02
1. 국내 건설지표.....	03
2. 해외 건설지표.....	10
3. 주가 및 밸류에이션.....	14
4. [첨부] 미국 주택지표.....	16

건설 (Positive)

6월: 주택 시장의 지각변동

국내: 4월 누계 도시정비 수주 87% 증가

2025년 4월 국내 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16.7% 감소한 13.5조 원을 기록했다. 4월 누계 기준 8.1% 감소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수주 증가가 두드러졌다. 4월 도시정비 수주는 전년 동기대비 2.76조 원 증가하며 신규주택 감소분(2.84조 원)을 대부분 메웠다. 4월 누계 기준 주택 수주는 신규주택이 47% 감소한 반면, 도시정비는 87% 증가함에 따라 올해 들어 신규주택과 도시정비의 시장 규모가 뒤집힌 상태다. 한편,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과 주택 인허가 실적은 4월에 각각 YoY -15.9%, -14.0%를 기록했다.

2025년 분양 계획은 지난달 20만 세대에서 23.2만 세대로 늘어났으며, 6/17 기준 6.8만 세대의 분양 공급이 이루어졌다. 5월 누계 기준으로는 작년 9.7만 세대에서 올해 6.3만 세대로 전년동기 대비 35% 가량 공급이 줄어든 상태다. 4월 미분양은 전월대비 1127세대 감소한 67793세대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 세 달 연속 감소다. 한편, 4월 준공 후 미분양은 26422세대로 전월대비 1305세대 늘어남에 따라 21개월째 증가를 기록 중이다.

해외: MENA 주요국 발주 감소

2025년 4월 누계 기준 MENA지역 프로젝트 계약액은 전년동기 대비 22.7% 감소했고, 국내 건설사의 5월 누계 해외수주는 116.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5월 중 국내 건설사의 신규수주는 대우건설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1.1조 원)가 주요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올해 해외수주 목표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500억 달러다. 주요 5개 건설사(현대건설, 삼성E&A,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의 올해 해외수주 목표는 31.6조 원으로 전년대비 11.7% 높게 제시됐으며, 1분기말 합산 기준 목표 달성률은 15.0% 수준이다.

건설업 투자전략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Positive(긍정적)'로 유지한다. 주택 마진 개선 및 도시정비 중심의 물량 방어 등으로 2027~28년까지 이익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사 전반적으로 주가 회복의 방향성이 비교적 뚜렷할 전망이다. 다만, 도시정비 위주의 Q 성장, 비주택 부문의 실적 방향성, 각사 재무현황, 모멘텀 보유 여부 등 고려 시 업체간 멀티플의 괴리는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업종 내 최선호주로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을, 관심주로 GS건설을 유지한다.

0. 도시정비 시장, 본격 개화

부진한 업황? 주택 업황을 대변하는 물량(Q)의 성장은 아직 부재하다.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 계획은 23만 세대 수준으로 장기 평균 30만 세대를 여전히 밑돌고, 4월 누계 기준 민간 주거용 건축(주택) 수주도 YoY +1.8%로 증가가 미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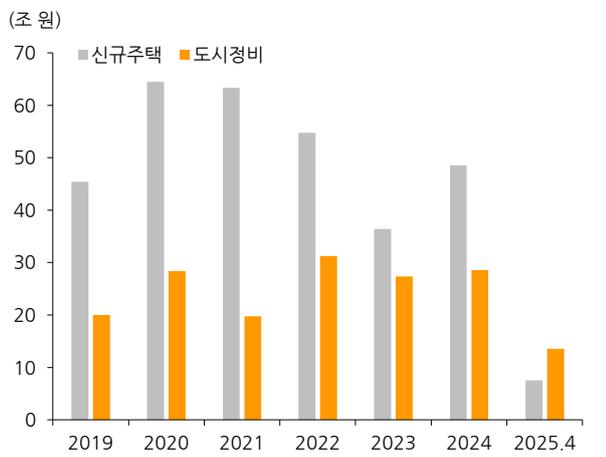
주택 시장의 지각변동 : 신규주택 vs. 도시정비 그러나 주택 수주를 좀 더 뜯어서 살펴보면, 통틀어 불황이라고 단정짓기엔 도시정비 부분의 수주 분위기가 뜨겁다. 건설사가 민간 도급 사업이라 칭하는 신규주택 수주는 4월 누계 기준 YoY -47%를 기록하며 여전히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도시정비 수주는 무려 87% 증가하며 성장의 그림을 자아내고 있다. 이로써 신규주택과 도시정비의 시장 규모 또한 올해 들어 뒤집혔다.

수주 인식 이전에 이뤄지는 시공사 선정을 기준으로 봐도 수주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다. 5월 말 기준 대형 10개 건설사 합산 도시정비 수주 금액은 21.3조 원으로 작년 연간의 77%를 달성했다. 올해 이 시장의 규모가 적게는 50조 원, 많게는 80조 원까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도시정비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대형건설사, 방어를 넘어 성장으로 도시정비 시장은 아파트 브랜드 상위 건설사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택 중심의 수주 감소를 도시정비가 대부분 메우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대형 건설사들은 물량의 방어 또는 성장이 가능해진다. 참고로 지난 1분기 대형 5개사(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의 주택 수주는 전년동기 대비 모두 증가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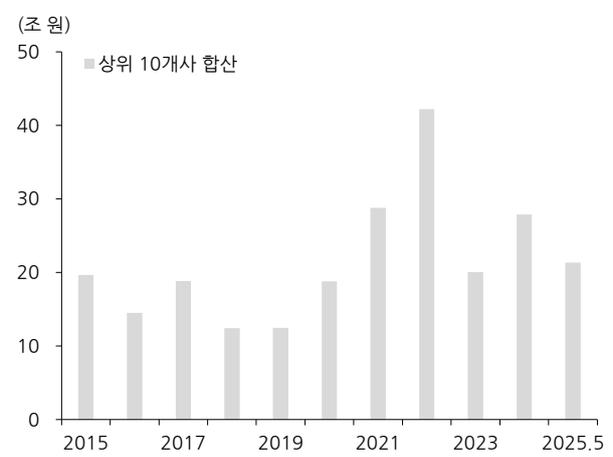
향후 2~3년 마진 개선 + Q 회복 지속 향후 2~3년 간 마진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 시점에서 주택 물량이 적어도 줄지만 않는다면 주택관련 이익은 더욱 유의미한 증가가 예상된다. 주택 업황이 안 좋다고 말하기에는 대형사들의 이익 개선 전망은 상당히 뚜렷하다. 이를 감안하면 2021년 주택 호황기 당시 시가총액 레벨을 타겟하는 것이 전혀 무리는 아니다. 여기에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는 실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인이다.

[그림1] 국내 주택수주 추이: 도시정비 수주 YoY +87%



자료: 대한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상위 10개 건설사 합산 도시정비 수주



주: 시공사 선정 기준

자료: 언론보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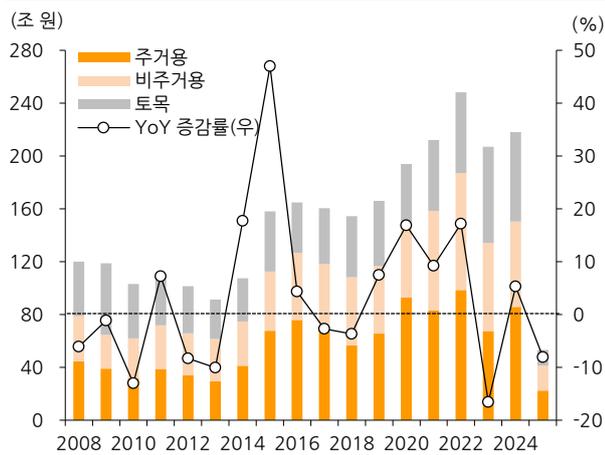
1. 국내 건설지표

(1) 선행지표

2025년 4월 국내 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16.7% 감소한 13.5조 원을 기록했다. 4월 누계 기준 8.1% 감소다. 사무실/점포, 공장/창고, 학교/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공공 건축수주는 전년동기 대비 6.3% 증가했으나 민간 건축수주는 11.4% 감소했고, 토목은 공공과 민간 모두 감소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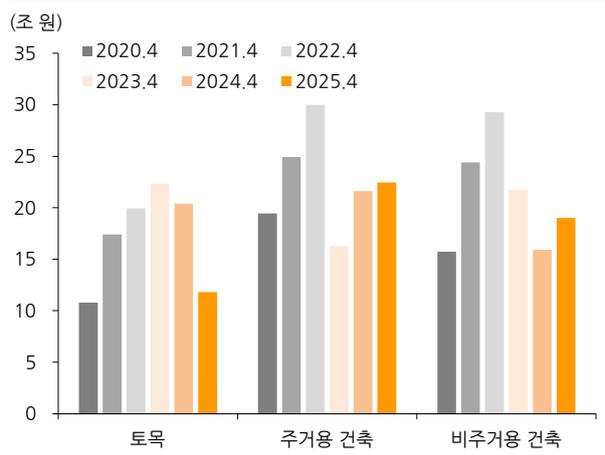
세부 공종별로는 재개발재건축 수주 증가가 두드러졌다. 4월 도시정비 수주는 전년 동기대비 2.76조 원 증가하며 신규주택 감소분(2.84조 원)을 대부분 메웠다. 4월 누계 기준 주택 수주는 신규주택이 47% 감소한 반면, 도시정비는 87% 증가함에 따라 올해 들어 신규주택과 도시정비의 시장 규모가 뒤집힌 상태다. 한편,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과 주택 인허가 실적은 4월에 각각 YoY -15.9%, -14.0%를 기록했다.

[그림3] 국내 건설 수주액: '25년 4월 YoY -16.7%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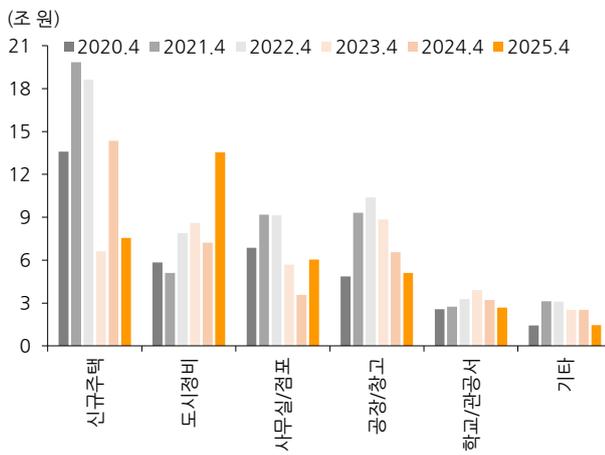
자료: 대한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국내 건설수주 부문별 현황(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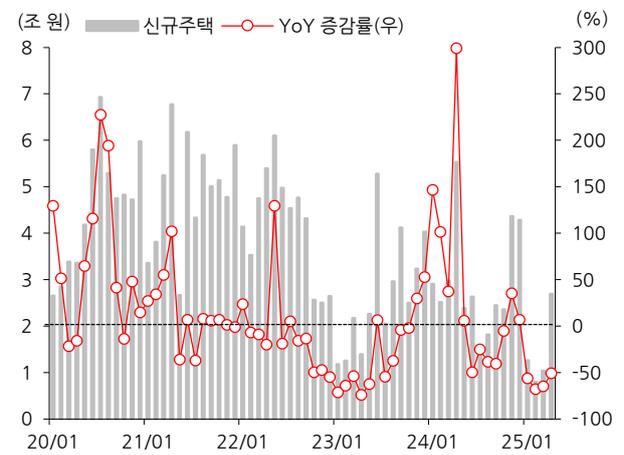
자료: 대한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건축부문 세부공종별 수주 현황(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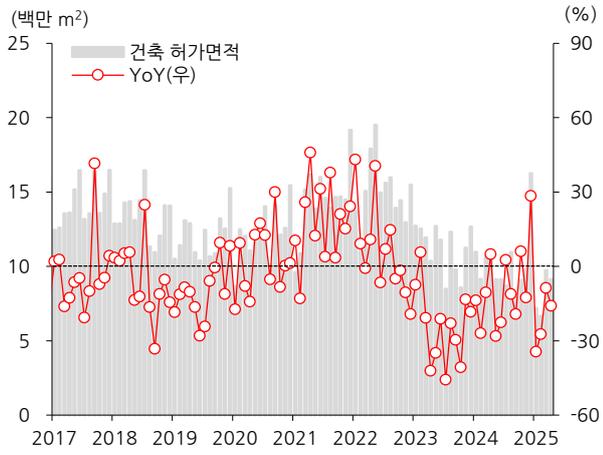
자료: 대한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민간 신규주택 수주 월별 추이: '25년 4월 YoY -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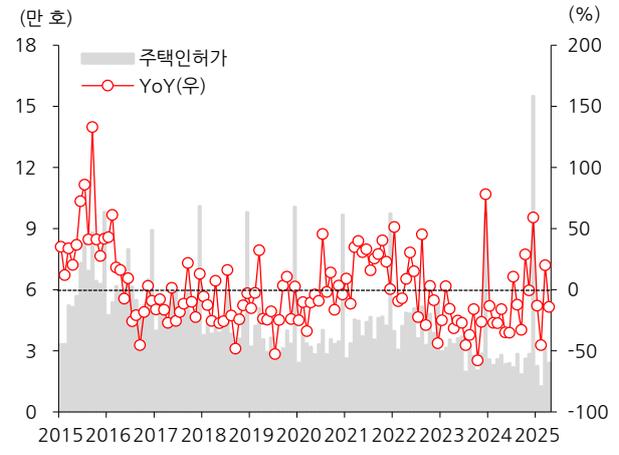
자료: 대한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건축 허가면적: '25년 4월 누계 YoY -21.4% 기록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주택 인허가: '25년 4월 누계 YoY -12.2%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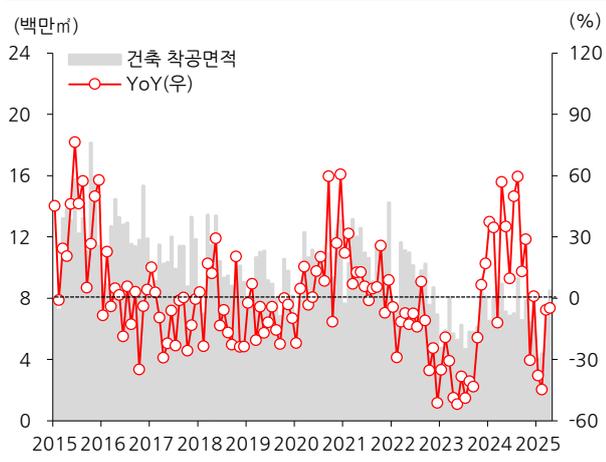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동행지표

4월 건축 착공면적은 전년 동기대비 4.9% 감소했다. 주거용 착공면적은 YoY -10.2%를, 비주거용 착공면적은 -1.2%를 기록했다. 1~3월 대비 YoY 감소폭이 줄어들어 따라 4월 누계 기준 감소폭 또한 -22.5%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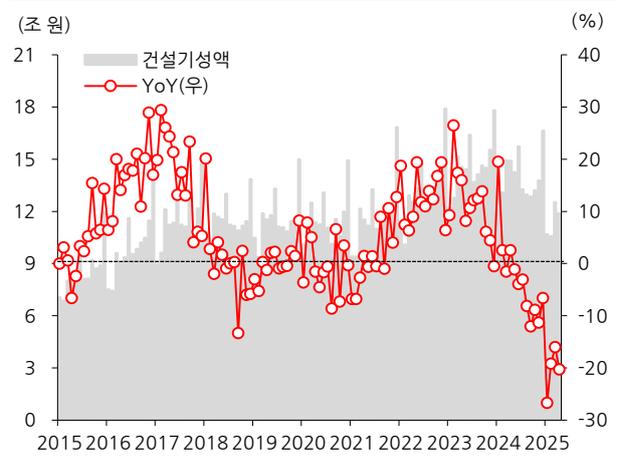
건설 기성액은 작년 3월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어 올해 들어 그 폭이 더욱 확대되는 중이다. 작년 2분기 1.0% 감소로 전환된 이후 3~4분기에는 각각 -7.9%, -9.0%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는 전년동기 대비 20.7% 감소했다. 4월에는 YoY -20.1%를 기록했다.

[그림9] 건축 착공면적: '25년 4월 누계 YoY -22.5%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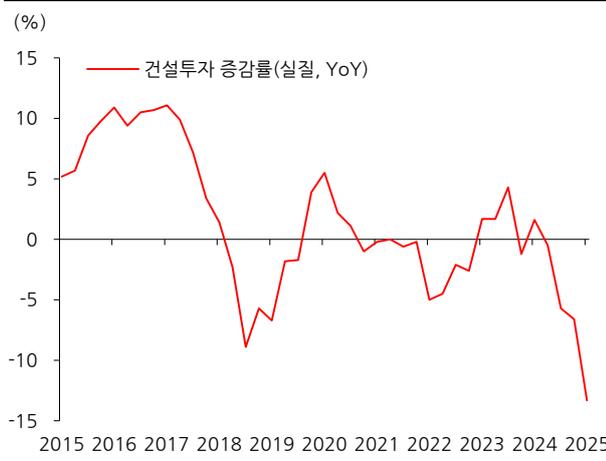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건설 기성액: '25년 4월 누계 YoY -20.5%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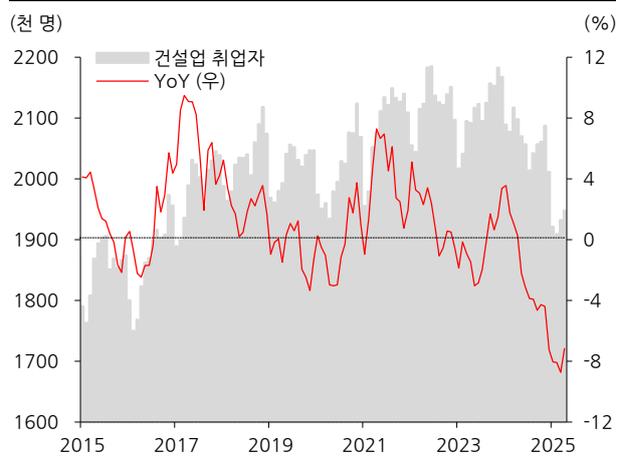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건설 투자 증감률: '25년 1분기 YoY -13.3% 기록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건설업 취업자 동향: '25년 4월 YoY -7.1%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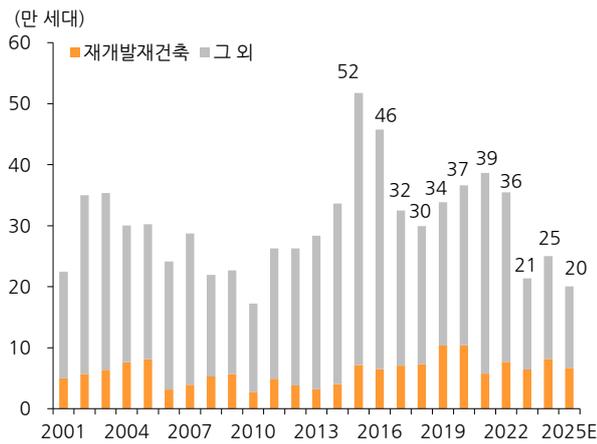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주택 분양 지표

2025년 분양 계획은 지난달 20만 세대에서 23.2만 세대로 늘어났으며, 6/17 기준 6.8만 세대의 분양 공급이 이루어졌다. 5월 누계 기준으로는 작년 9.7만 세대에서 올해 6.3만 세대로 전년동기 대비 35% 가량 공급이 줄어든 상태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분양 공급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지면서 전체 공급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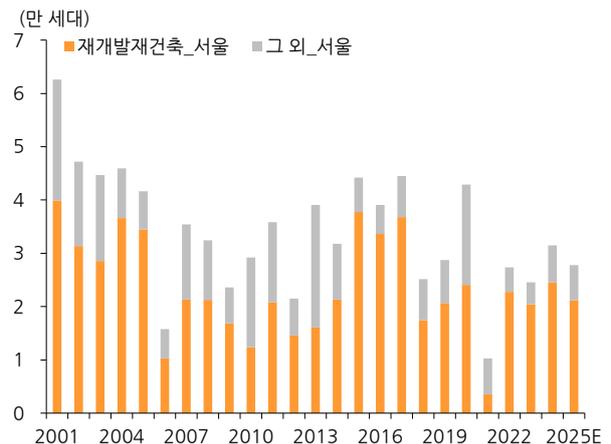
한편, 4월 미분양은 전월대비 1127세대 감소한 67793세대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 세 달 연속 감소다. 수도권은 작년 9월 이후 5개월 연속 미분양 증가가 이어져오다 올해 2월 이후 감소로 전환했으며, 지방은 작년 9월 이후 정체 수준이다. 한편, 4월 준공 후 미분양은 26422세대로 전월대비 1305세대 늘어남에 따라 21개월째 증가를 기록 중이다. 이 중 지방이 21897세대(약 83%)로 증가세가 다소 가파른 모습이다.

[그림13] 아파트 분양공급 추이 및 계획: '25년 20만 세대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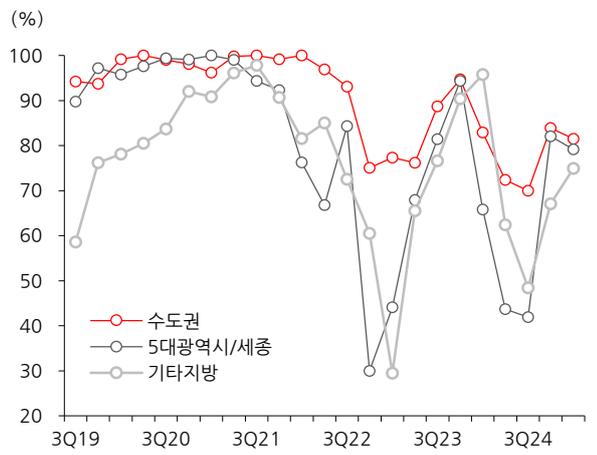
자료: 부동산 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서울 아파트 분양공급 추이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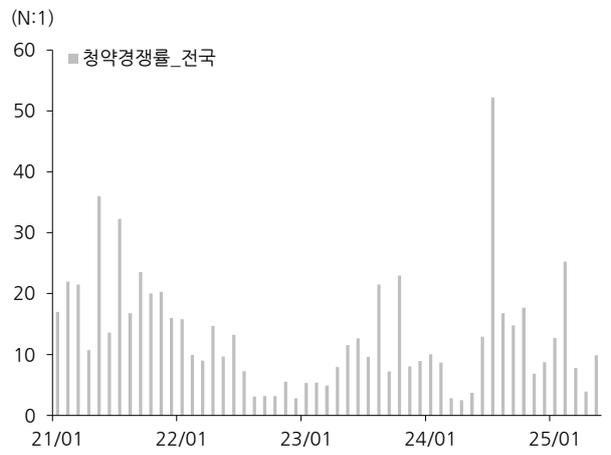
자료: 부동산 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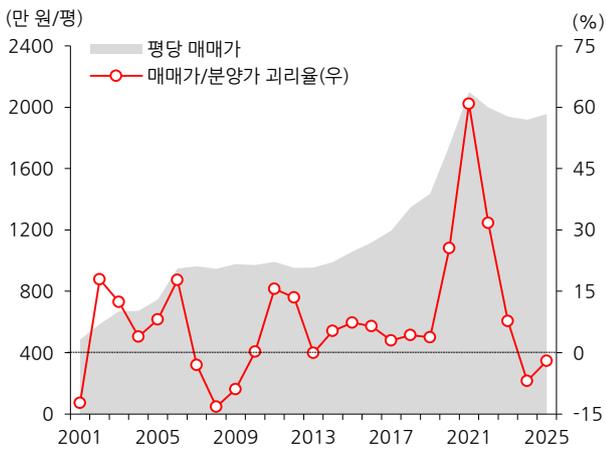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전국 청약경쟁률 추이(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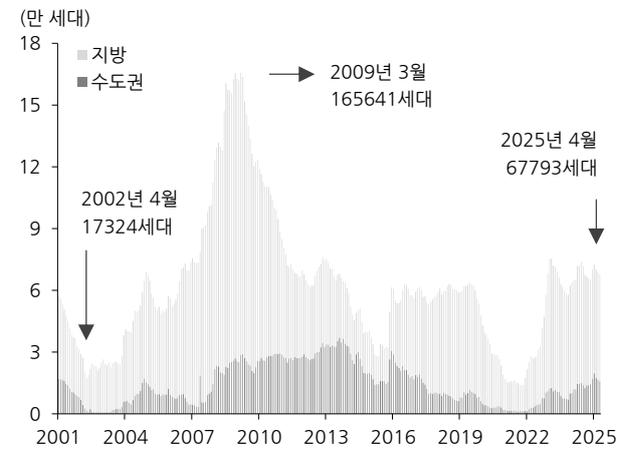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전국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가 괴리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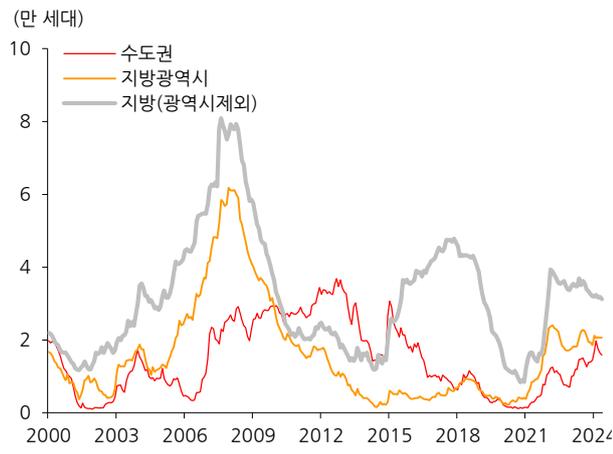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전국 아파트 미분양 세대수: 전월비 1127 세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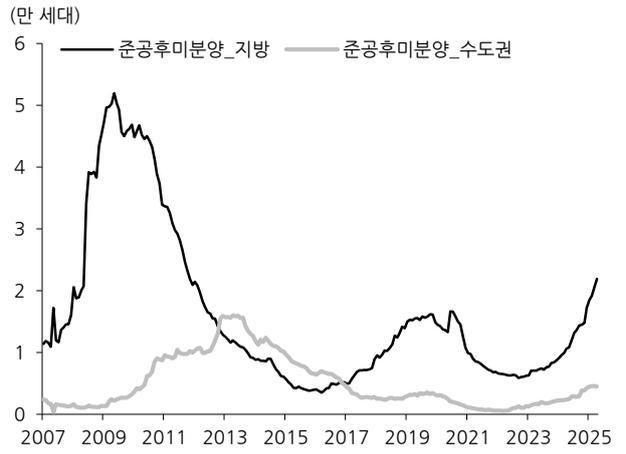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지역별 아파트 미분양 추이: 지방 전월비 504 세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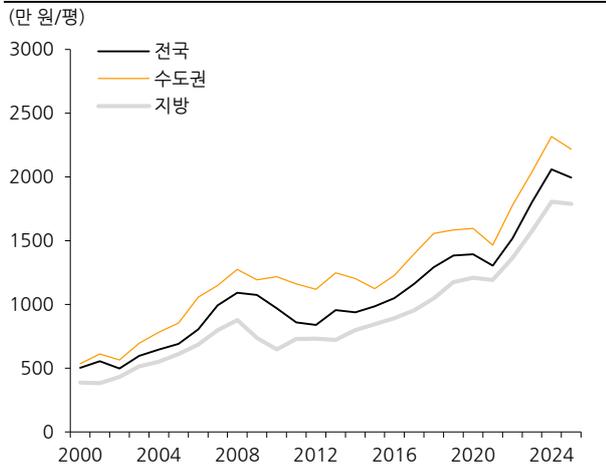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전국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 전월비 1305 세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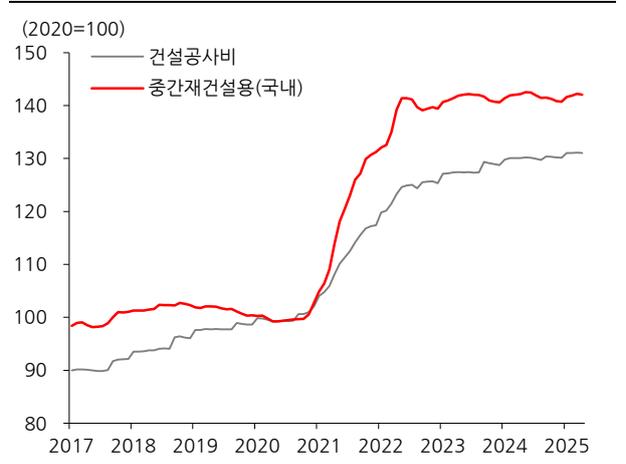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전국 아파트 분양가 추이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건설공사비 및 건설용 자재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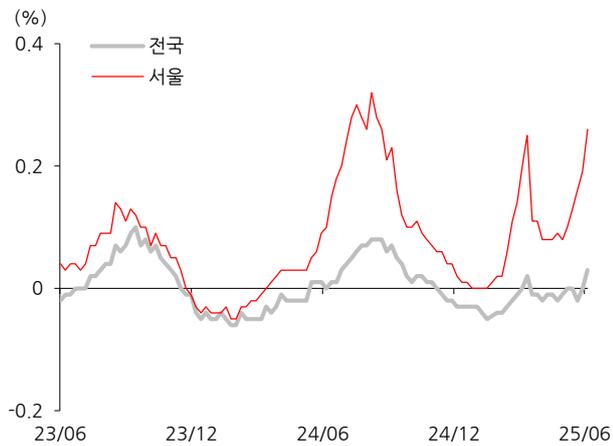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 주택 거래 지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변동률은 가계대출 관리 등의 영향으로 작년 11월 중순 하락 전환 이후 약보합세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올해 2월 이후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매매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세가격 또한 오름세다. 지방은 매매가격, 전세가격 모두 약보합세가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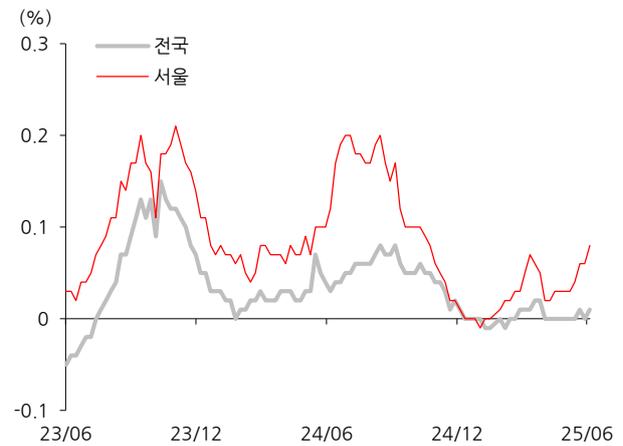
한편, 4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2.4%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 보면, 아파트와 그 외 주택이 각각 YoY +14.9%, +4.5%를 기록했다. 한편,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는 8029건으로 전월 9349건 보다 줄었으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65.9% 늘었다.

[그림23]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주간변동률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4]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주간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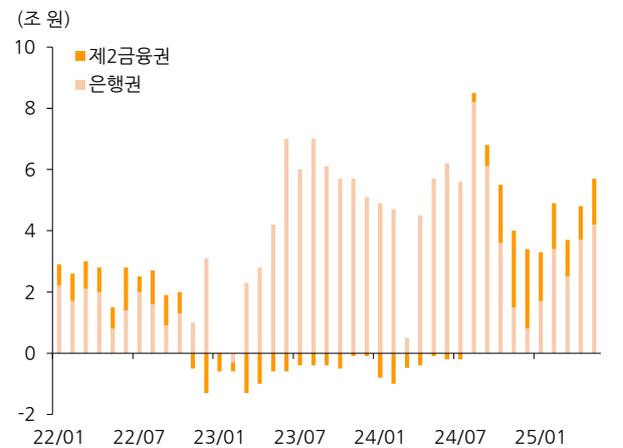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5] COFIX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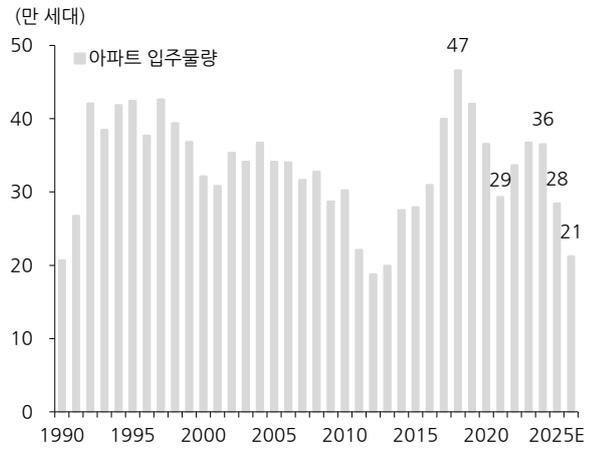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6] 주택담보대출 MoM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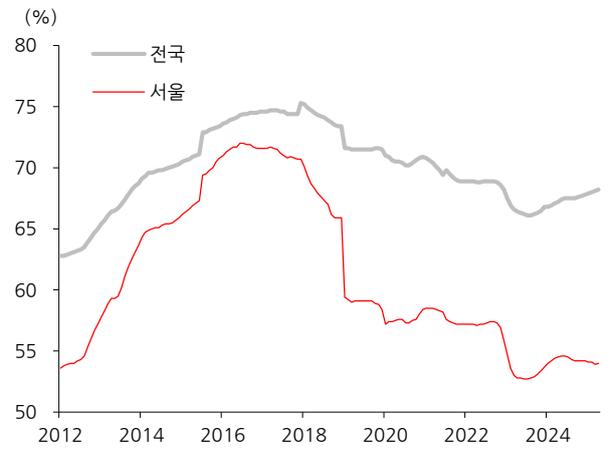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7] 아파트 입주물량 추이: 2025~26년 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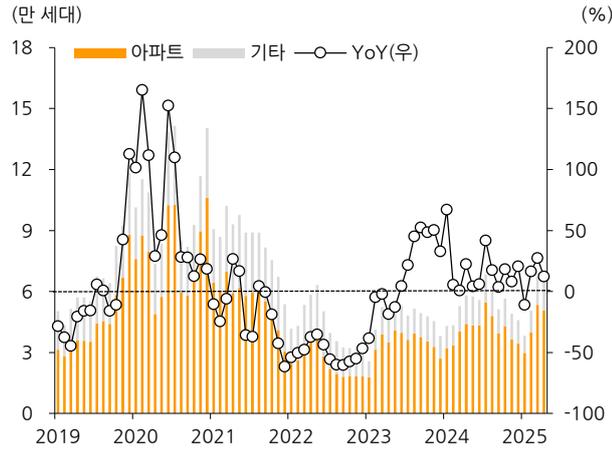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8]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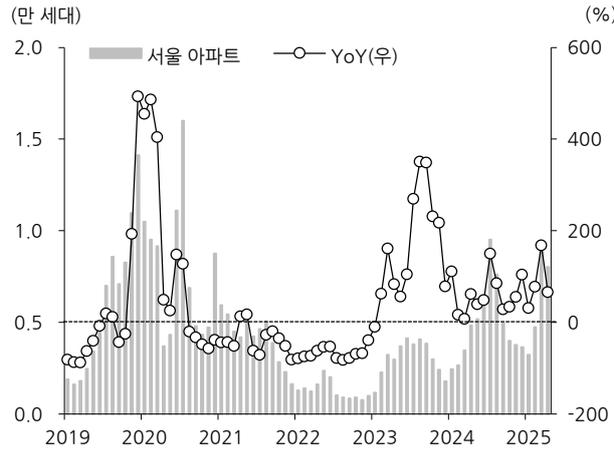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9] 주택 매매거래량: 4월 YoY+12.4% 기록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0] 주택 매매거래량 - 서울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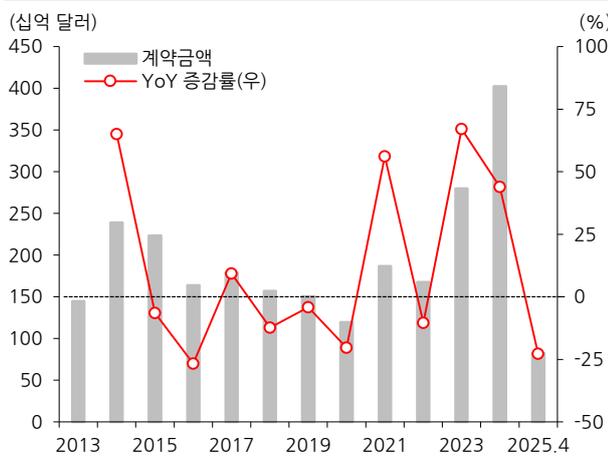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해외 건설지표

(1) 중동 발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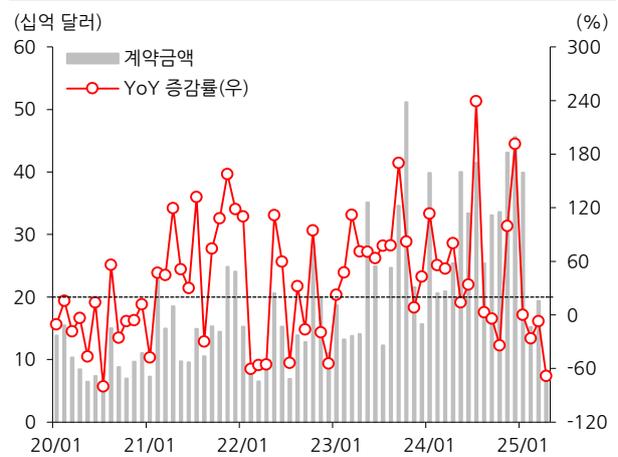
2025년 4월 MENA지역 프로젝트 계약액은 8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8.5% 감소했다. 4월 누계로는 22.7% 감소다. 4월 계약금액 중 공종별로는 Construction과 Water, Transport 프로젝트가 각각 35.3%, 19.9%, 15.1%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 36.7%, UAE 30.9%, 쿠웨이트 13.0%, 이라크 5.8% 순이었다.

[그림31] MENA 지역 발주금액: '25년 4월 누계 YoY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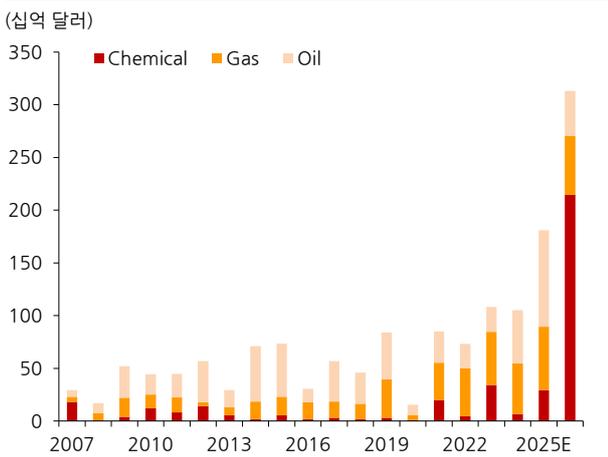
자료: MEED Project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2] MENA 지역 발주금액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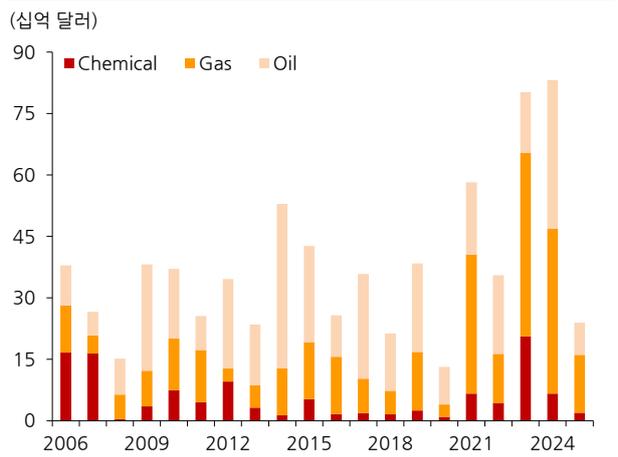
자료: MEED Project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3] MENA 주요 7개국 예산액 추이(석유가스)



주: '25년 6월 중순 기준
자료: MEED Project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4] MENA 주요 7개국 발주금액 추이(석유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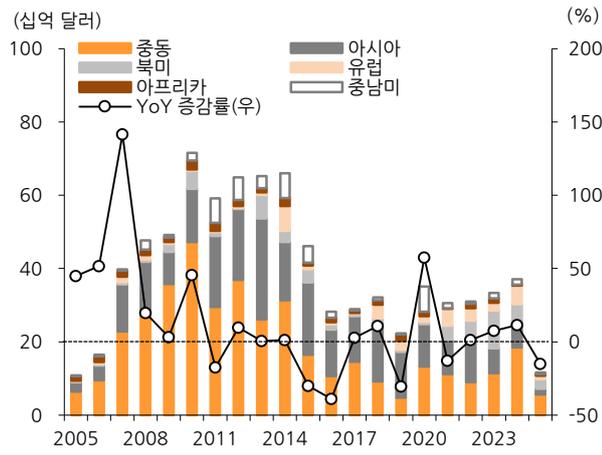
주: '25년 6월 중순 기준
자료: MEED Project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국내 건설사 해외 수주

2025년 5월 누계 해외수주는 116.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5% 감소를 기록 중이다. 업체별로는 두산에너빌리티 24억 달러, 삼성물산 22억 달러, 삼성E&A 18억 달러, 대우건설 12억 달러, 현대엔지니어링 9억 달러, 현대건설 7억 달러 순이다. 지역별로는 중동이 49%, 공중별로는 플랜트가 62%로 비중이 가장 크며,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 27억 달러, UAE 24억 달러, 미국 24억 달러, 투르크메니스탄 8억 달러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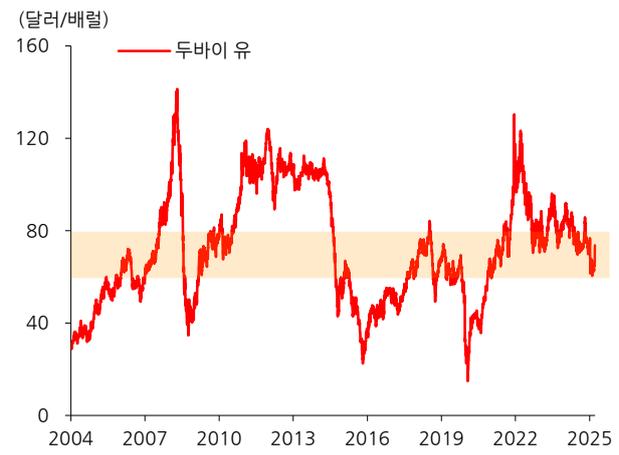
5월 중 국내 건설사의 신규수주는 대우건설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1.1조 원)가 주요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올해 해외수주 목표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500억 달러다. 주요 5개 건설사(현대건설, 삼성E&A,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의 올해 해외수주 목표는 31.6조 원으로 전년대비 11.7% 높게 제시됐으며, 1분기말 합산 기준 목표 달성률은 15.0% 수준이다.

[그림35] 국내 건설사 해외수주: 2025년 5월 누계 YoY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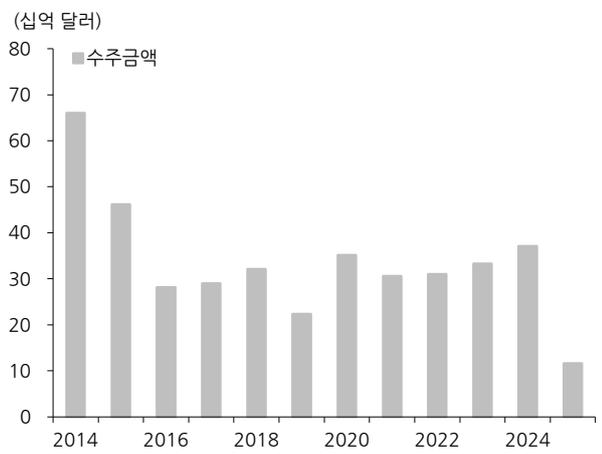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6] 두바이유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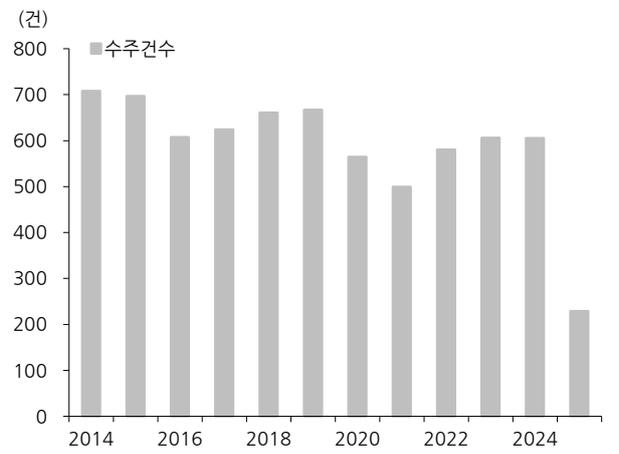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7]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 성과(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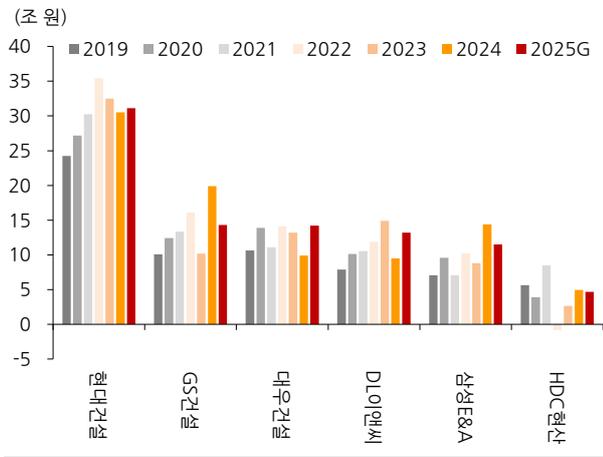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8]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 성과(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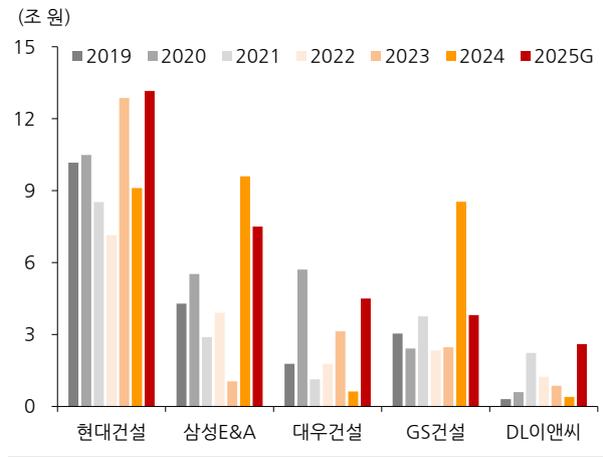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9] 주요 건설사 총 신규수주 추이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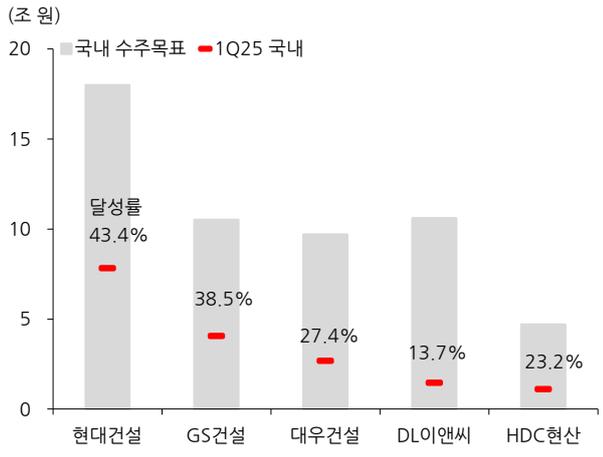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0] 주요 건설사 해외수주 추이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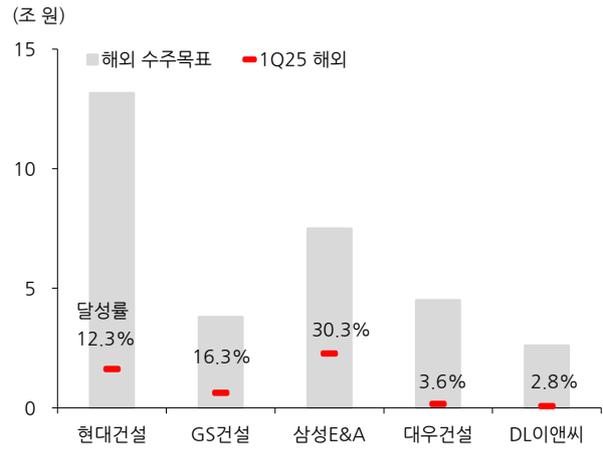
주: 삼성E&A 화공 부문 /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1] 주요 건설사 국내 수주 목표 달성률: 합산 기준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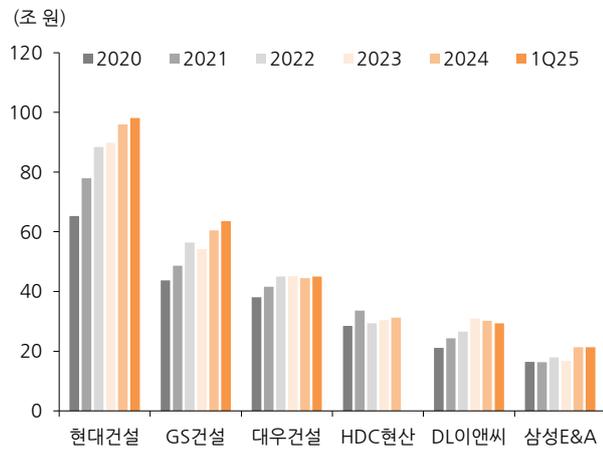
주: 연결 기준, DL이앤씨 수주 목표는 당사 가정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2] 주요 건설사 해외 수주 목표 달성률: 합산 기준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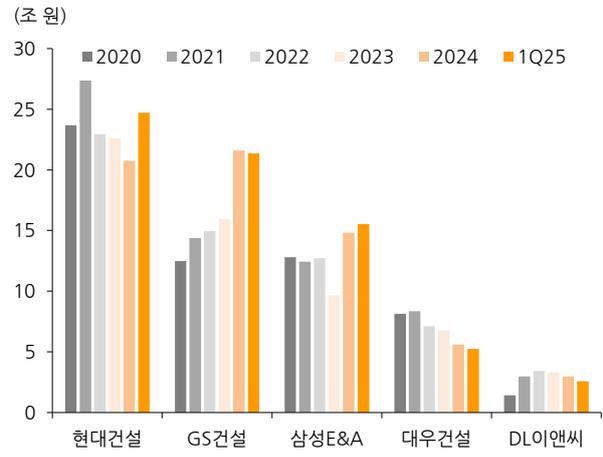
주: 연결 기준, DL이앤씨 수주 목표는 당사 가정, 삼성E&A는 화공/비화공 구분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3] 주요 건설사 전체 수주잔고 추이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4] 주요 건설사 해외 수주잔고 추이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1] 2025년 해외수주 목표 및 수주 파이프라인

건설사	프로젝트명	규모	수주시기	비고
현대건설 [목표 13.1조 원]	2025년 수주 목표	13.1조 원		1분기 목표 달성률 12.3%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	1200억 원	'25.4	기 수주
	이라크 해수처리시설	35억 달러	2Q25	단독 시공협상 중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	1.1억 달러	2Q25	
	(엔지) 유럽 공사	2조 원	3Q25	단독 MOU 체결, 설계 진행 중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7,8호기	70억 달러	4Q25	사전설계 수행 중
	파푸아뉴기니 LNG	14억 달러	4Q25	w/ JGC, FEED완료, FID 대기 중
	(엔지) CIS 국가 2개 프로젝트	합산 4조 원	2025	단독 협상진행 중
	사우디 LTC Ph2	30억 달러	2026	FEED 결과 대기중(1H25)
사우디 블루암모니아	31억 달러	2026	FEED 경쟁 중	
삼성E&A [목표 7.5조 원]	2025년 수주 목표	7.5조 원		1분기 목표 달성률 30.3%
	사우디 SAN-6 블루암모니아	30억 달러	1H25	
	미국 블루암모니아	10억 달러	1H25	
	카타르 NGL-5	30억 달러	2H25	
	쿠웨이트 KOC 가스	20억 달러	2H25	
	UAE Adnoc 샤페 가스	20억 달러	2H25	
	UAE Taziz SALT	25억 달러	2H25	
대우건설 [목표 4.5조 원]	2025년 수주 목표	4.5조 원		1분기 목표 달성률 3.6%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	1.1조 원	'25.7	기 수주
	이라크 알포 해군기지	1.8조 원	3Q25	
	체코 원자력 발전	미정	3Q25	'24.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라크 공군기지	1조 원	2025	
	쿠웨이트 정유/가스 경제설비	미정	2025	
	나이지리아 Indorama 신규	미정	2025	
GS건설 [목표 3.8조 원]	2025년 수주 목표	3.8조 원		1분기 목표 달성률 16.3%
	UAE North-East Bab P5	16억 달러	2025	
	UAE Taziz radar 블루암모니아	20억 달러	2025	
	터키 tupras SAF	10억 달러	2025	
DL이앤씨 [목표 2.6조 원]	2025년 수주 목표	2.6조 원		1분기 목표 달성률 2.8%
	플랜트 화공	1.5조 원	2025	
	동남아 토목 2건	0.5조 원	2025	

주: 삼성E&A 화공 수주, 대우건설, DL이앤씨 해외 수주 목표는 당사 추정치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주가 및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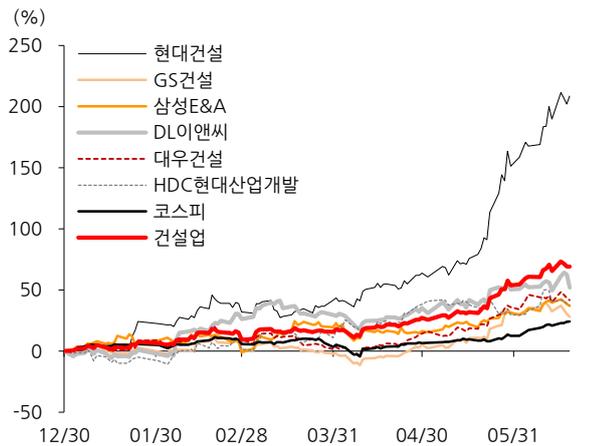
KOSPI 건설업
YTD 주가수익률 +69.0%

2025년 건설업 YTD 주가 수익률은 +69.0%로 KOSPI의 +24.1%를 44.9%p 아웃퍼폼 중이다. 건설업과 KOSPI의 주가 괴리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점차 벌어지기 시작해 3월말 이후 트럼프 관세 영향 등으로 KOSPI가 하락할 때 더욱 확대됐다. 5월 들어서는 원전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종목별로는 대형 6개사 모두 YTD 수익률이 KOSPI를 상회하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YTD +208.7%로 압도적인 주가수익률을 기록했다.

건설업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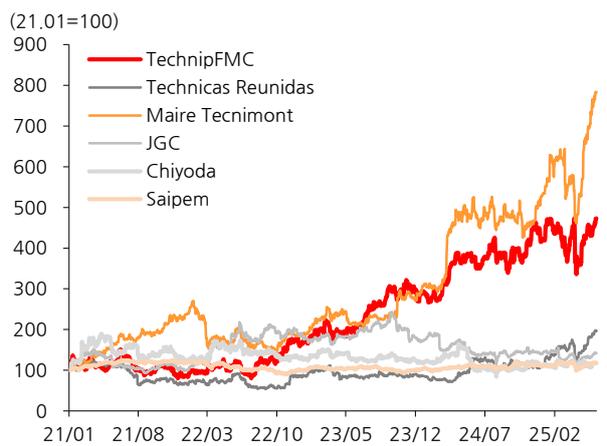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Positive(긍정적)'로 유지한다. 주택 마진 개선 및 도시정비 중심의 물량 방어 등으로 2027~28년까지 이익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사 전반적으로 주가 회복의 방향성이 비교적 뚜렷할 전망이다. 다만, 도시정비 위주의 Q 성장, 비주택 부문의 실적 방향성, 각 사 재무현황, 모멘텀 보유 여부 등 고려 시 업체간 멀티플의 괴리는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업종 내 최선호주로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을, 관심주로 GS건설을 유지한다.

[그림45] 국내 주요 건설사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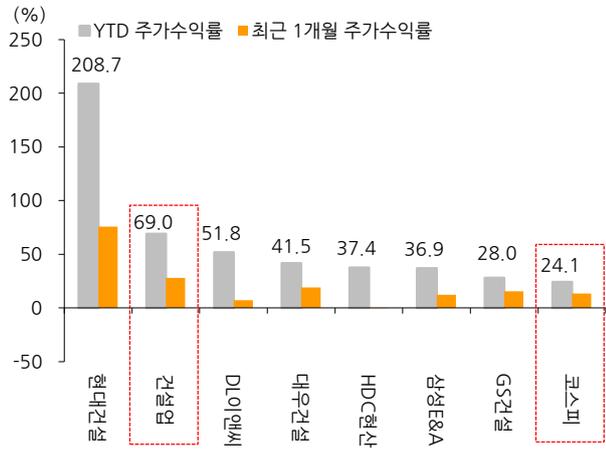
주: 6/18 종가 기준 /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6] 해외 주요 건설사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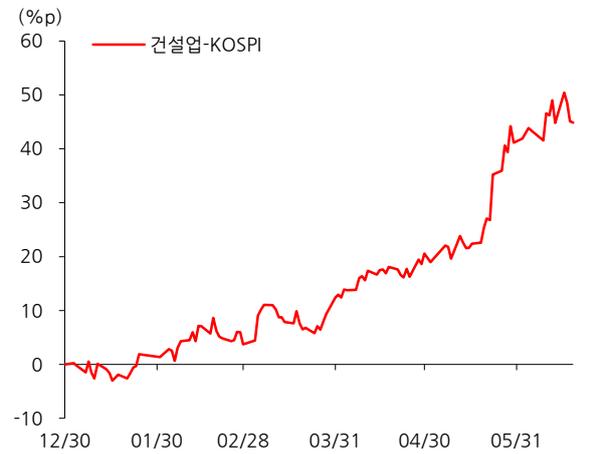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7] 주요 건설사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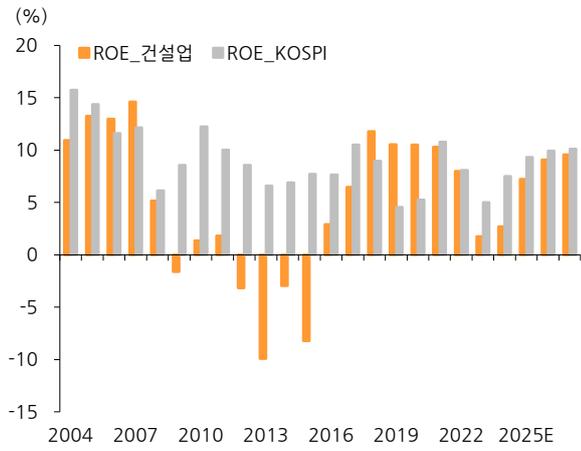
주: 6/19 종가 기준 /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8] 건설업과 코스피와의 주가 괴리



주: 6/19 종가 기준 /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9] KOSPI와 건설업 RO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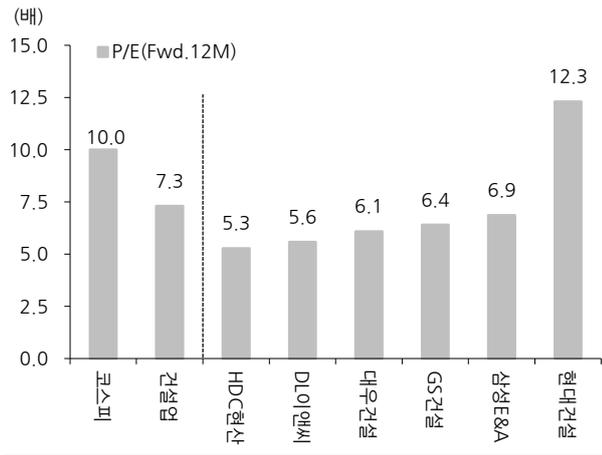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0] KOSPI 건설업 밸류에이션 추이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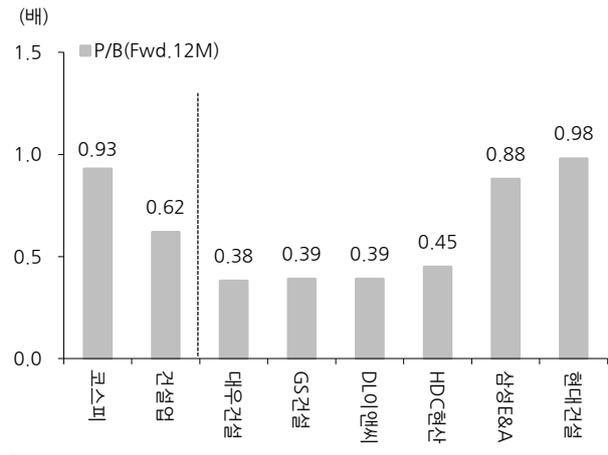
[그림51] KOSPI와 주요 건설사 12M Fwd. P/E



주: 6/19 종가 기준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2] KOSPI와 주요 건설사 12M Fwd.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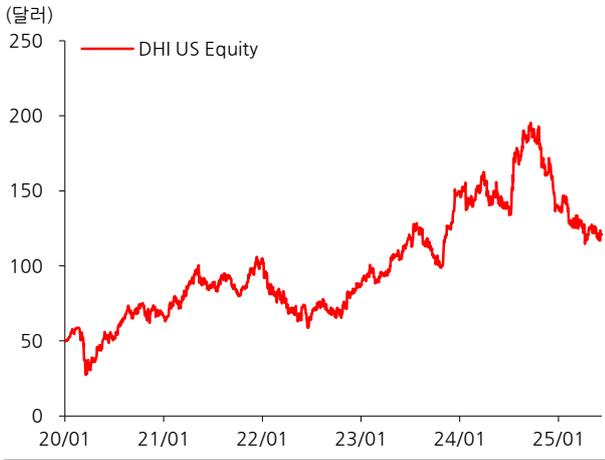


주: 6/19 종가 기준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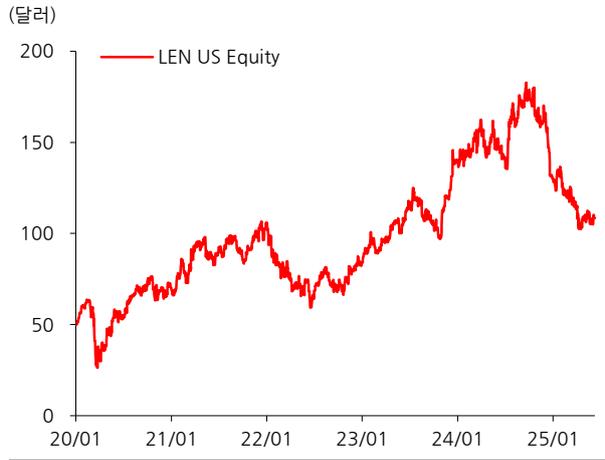
4. [첨부] 미국 주택지표

[그림53] 미국 DR Horton (NYSE: DHI)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4] 미국 Lennar (NYSE: LEN)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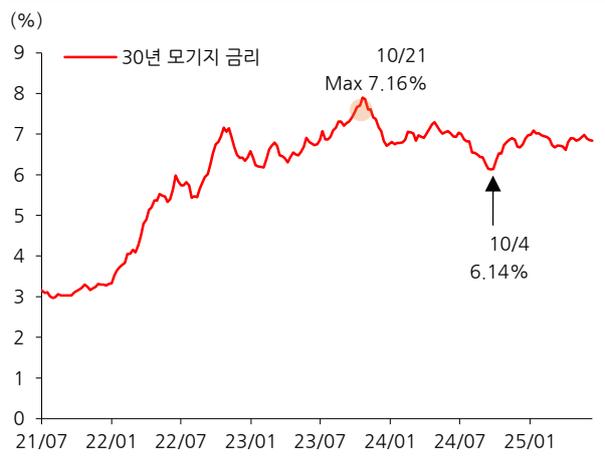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5]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장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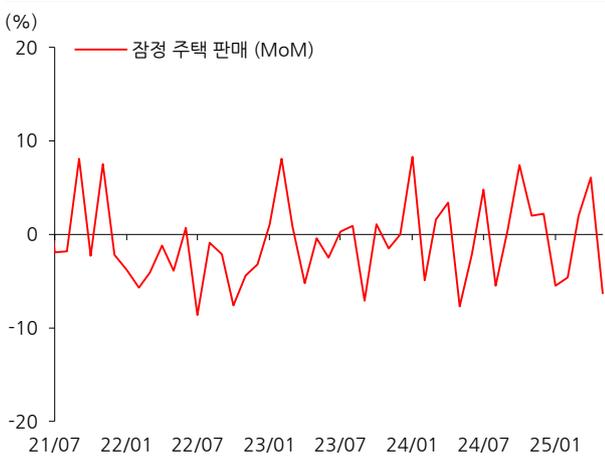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6]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최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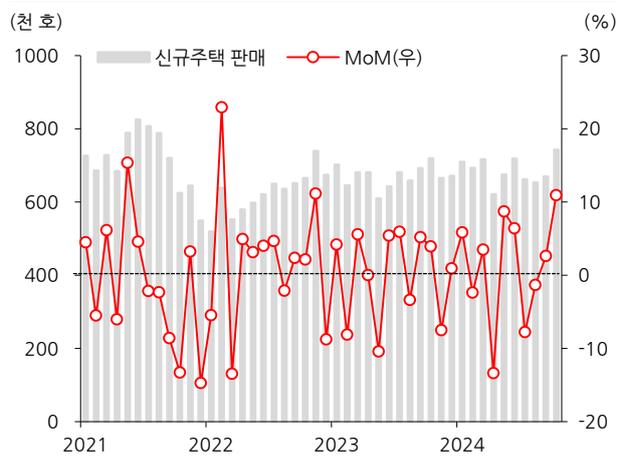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7] 미국 잠정주택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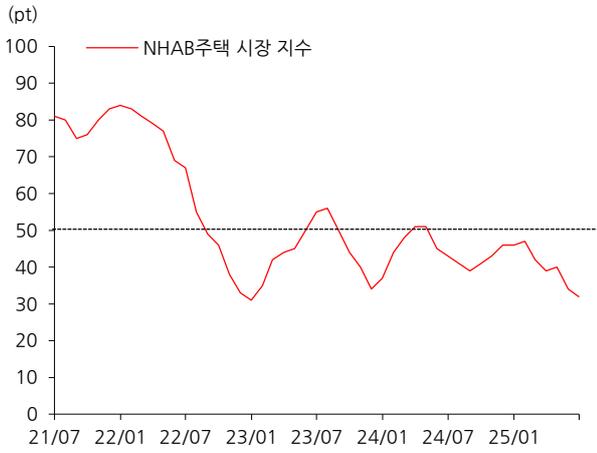
자료: NAR,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8] 미국 신규주택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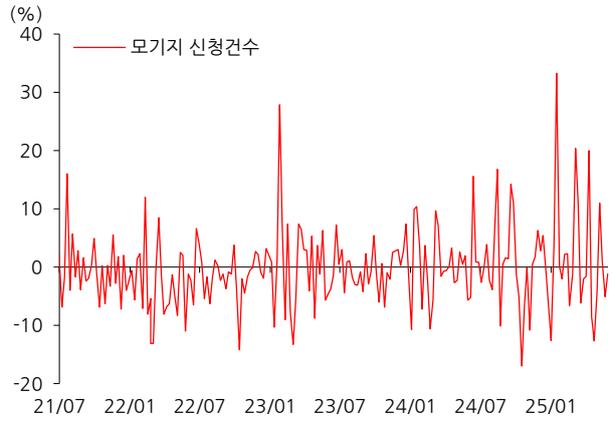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9] 미국 NHAB 주택 시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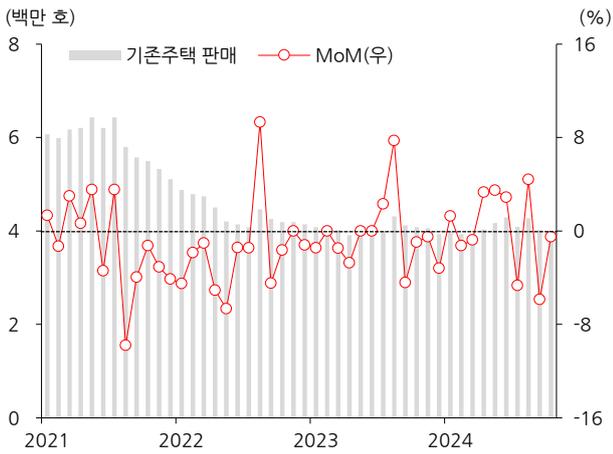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0] 미국 모기지 신청 건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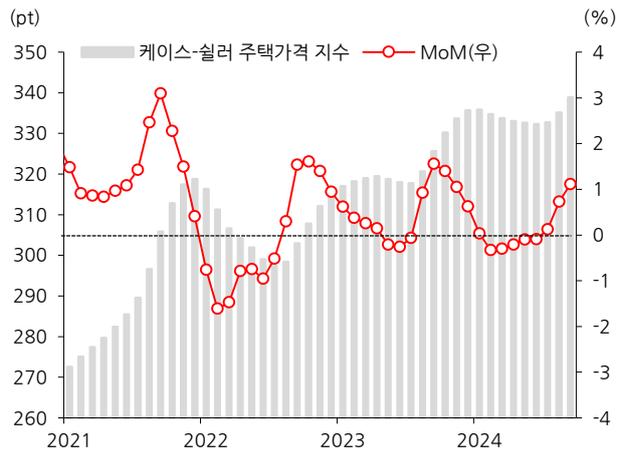
주: 전주대비 증감률 / 자료: MBA,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1] 미국 기존주택 판매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2]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5년 6월 20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송유림, 김예인)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지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이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이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5년 3월 31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0.9%	9.1%	0.0%	100.0%